

서호인의 '소설처럼'



좋은 곳은 어디인가 -이유리 연작 소설 '좋은 곳에서 만나요'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 죽은 자와의 통신은 신화나 미신의 영역에서 논할 수는 있겠으나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여겨진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죽음 뒤에는 산 자의 기억과 애도가 있을 뿐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디로 가고 싶었든, 무엇이 되려고 했었든 상관없이 죽은 자는 세상에 없다.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어쩌면 그곳은 존재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어 없어졌을 뿐이고, 그의 육신은 화학적 방식으로 유기물이 되어 자연에 복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과학은 말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없기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 자주 말하는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그곳을 볼 수 있길 바란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곳에서, 떠나 자들이 평안하게 머물기를 바란다. 우리가 죽어서도 그곳으로 가길 바란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갖는 것일지도 모른다. 기도하고, 제의를 지내고, 정성을 다하는 것일 테다. 그럼에도 불완전 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이니까. 아마도 죽어서야 알 수 있을 테니까.

소설은 알 수 없는 그것을 그려내는 데 탁월한 장르이다. 사후 세계나 죽은 자의 영혼을 이미지나 영상으로 단정하지 않고 문장으로 풀어냄으로써 독자의 사고

에 여유 공간을 제공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죽음을 상상하고 사유할 수 있다.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정답이 없는 세계를 갈구함은 곧 철학적 질문의 연쇄를 일으킨다.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상상과 논증은 알고 있는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의 그 무엇이든 죽은 이전의 그 무엇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죽음은 삶을 부른다. 삶의 모든 순간이 죽음을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듯이.

이유리 연작 소설 '좋은 곳에서 만나요'는 죽음에 대한 질문에 삶의 한 걸음으로 다가가는 소설이다. '연작'답게 죽은 자들의 길고짧은 관계의 연쇄를 통해 진행되는 이 소설은 우리가 빠르게 소비되는 미디어와 기계적인 뉴스 속에서 슬하게 지나쳐간 죽을 하나하나를 소환해 낸다. 죽은 자들은 현실에서 당연하게도 각자의 삶이 있었다. 누군가는 선행한 청년이었고 누군가는 말도 못 할 약행을 저지른 범죄자였다. 누군가는 사랑에 서툰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사랑에 전부를 바친 고양이(!!)였다.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이 세계의 개발자"에 의해 세상에 나온 인물이거나 버그거나 유저일지도 모른다.

소설은 죽음을 통해 삶을 말한다. '오리배'의 죽은 자는 남겨진 가족의 감춰진 역사를 되짚으며 그들의 남은

삶이 안온하길 바란다. 그 안온함을 목격하고서야 좋은 곳으로 떠날 수 있다. '심야의 질주'의 죽은 자는 더욱 복잡하다. 그가 좋은 곳에 가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는 악인인데, 악인에게도 그가 추앙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을 통해 죽은 자는 자기 삶을 반추할 수도 있다. '세상의 끝'은 사랑의 끝이기도 하다. 사랑에 있어 돌의 감각은 동일할 수 없으며, 언제나 기울어져 있다. 기울어진 비탈에 선 자는 늘 속으로만 생각한다.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돌이면 충분하다고. '아홉 번의 생'은 한정이 있는 삶에서 한정이 없는 사랑을 찾는 고양이의 이야기이다. 그 한정 없음은 '영원의 소녀'에서 다시금 발견된다.

'좋은 곳에서 만나요'는 그리하여 죽음이 아닌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아니, 죽음과 사랑을 동시에 다루는 소설일 것이다. 죽음과 사랑, 사랑과 죽음……. 둘은 결국 삶을 이루는 거의 모든 요소가 아닐까. 사랑은 삶을 지속하게 하고, 죽음은 그런 삶을 끝장낸다.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기에, 사랑과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짝지를 이룬다. 그렇다면 이 소설을 읽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 혹은 사랑하다 죽으리라. 둘 중 무엇이든, 진정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에 후회는 없을 것이다. 후회가 없다면, 그곳이 이 세상에서, 아니 저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리라.

<시인>

의료칼럼

인공 지능과 난임 치료



기건형  
시열병원 난임클리닉 원장

의료 분야 중 산부인과 난임 치료는 나이가 들수록, 실패가 거듭될수록 시간이 소모해 환자의 연령이 높아지고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임신 확률이 떨어지므로 좋은 배아를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필자의 병원에서는 수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학습시켜 가능성이 높은 배아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 난임 환자의 임신 성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AI 기술은 여러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원인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의사와 연구진을 모두 돕는 보조 역할을 할 것이다.

게다가 AI 시스템을 활용한 유전자 분석은 난임의 유전적 요인을 신속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 전문가는 난임 부부 개별 환자의 유전자 프로필을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 전략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은 난임 치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부담감은 덜어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또한 AI는 방대한 양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미 현재도 난임에 특화된 AI 알고리즘은 수많은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가장 효과적인 약물 조합이나 치료 방법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의사는 개별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난임 환자의 임신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AI는 난임 환자들의 생리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각 치료별 효과를 평가하거나 잠재적인 위험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센서와 모니터링 장치를 겸비한 AI 시스템은 평소 환자의 체온, 혈압, 호르몬 수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스코 분석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감지해 의사가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설정하도록 보조할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AI의 적용은 왜곡된 방향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 기관은 철저한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해 환자들에게 관련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또 전통적인 의료 접근법에서 벗어나 진보된 기술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의료 관계자들 모두에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 일부 전문가들은 인공 지능 시스템 자체를 인간의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이의 발전을 염려하고 있지만 필자는 윤리적 사고 아래 AI는 인간의 필요로 만든 도구와 방법의 결과물로 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난임 분야 전반적인 치료 품질을 향상시키는 키(KEY)로서 치료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필자는 의료인으로서 의료 기관이 AI의 융합을 통한 적극적인 임상 연구와 협력이 이루어져 난임 치료 분야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로 인해 환자 및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정부 및 의료 기관 관계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해 본다.

기고

최흥종, 서서평 그리고 이세종과 이현필



서순복  
호남여성연구원 이사장  
조선대 법학과 교수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첫 번째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영성' (Spirituality)이라고 말한다. 물질 풍요의 시대에 사회가 성장할수록 인간의 영성도 더욱 풍성해야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하다. 과학 기술은 진보하나 정신과 영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은 메말라 간다.

한국 교회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변영과 성공 위주의 신앙이 발달해 왔으나, 기독교의 본래 정신인 비움과 금욕과 절제가 취약한 기복적인 구원론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화순의 영성가인 이공 이세종(1877~1942)과 이현필(1913~1964)은 서구의 영향을 받은 교회와 별개로, 한국의 독자적이라 할 수 있는 토착적 영성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 주었다.

우리 땅, 우리 시대, 우리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보여준 영성가들의 삶을 그려보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오

즘처럼 영성이 혼탁해지고, 감동의 눈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물질 세계를 넘어 영성에 대한 진실한 추구가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한국적 영성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초월한 수도원적 영성의 회복과 실천적인 삶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본래 수도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신앙적인 신념과 진리의 완전을 추구하는 수도 생활에 헌신하기로 서약한 수도자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다. 기독교의 경우 중신 수도자들은 수도 공동체에 입회할 때 이른바 '복음 삼탁'이라 부르는 청빈, 순종, 순결의 세 가지를 서약한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후, 자신을 가리켜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의미의 '이공' (李公)이라고 했던 이세종은 성경을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청빈·순명·순결 세 가지의 실천을 강조했다.

화순 산골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이공의 경건 운동과 가르침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수도원 운동과 동일한 덕목과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허락한 일종의 선물이란 생각된다.

나아가 그의 영성이 오늘날까지 의미가 있는 것은 비슷한 해에 출생하여 깊은 교류를 했던 '광주의 아버지'로 불린 최흥종 목사나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했던 서서평 등과 함께 이룬 보편적인

기독교 영성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에서 1904년은 기독교 역사의 전환을 이루는 분기점이 된다. 왜냐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을 거쳐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가 광주 양림동에 선교 동지를 트 해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 서양 선교사들의 헌신과 더불어 광주의 최초 목사로 3·1운동과 신간회 광주 책임자였던 최흥종 목사를 필두로 호남 교회 역사가 펼쳐졌다.

이와 더불어 화순 도암을 중심으로 한국적 영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공 이세종과 그의 제자 이현필이 활동한 것은 이 땅의 백성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어떻게 배운 것 없는 일터무시(?)의 머슴 출신 이세종이 수도하는 개천산 아래에 당시 광주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인 최흥종, 강순명 목사 등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갈리교 신학대학 교수였던 정경옥은 1937년 이세종을 만나보고 그를 가리켜 '조선의 소박하고 순수한 성자'라고 칭하였다. 이처럼 호남 지역 초대 교회사에서 이공 이세종, 이현필, 최흥종과 더불어 서서평, 유화례 선교사 등은 호남 영성의 맥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새롭게 출범한 '호남여성연구원'은 호남 초대 교회 선각자들의 영성을 탐구해, 한국 교회와 사회에 영성의 샘물을 공급하는 역할에 작은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社說

전방·일신방직 터 개발 공공성 확보가 먼저다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 사업이 시민 편의와 공공성 확보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는 최근 각종 추천 기관을 통해 부지 감정 평가를 완료했다.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할 때는 땅값 상승 차익에 따른 공공 기여를 전제로 도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부지 감정가는 시와 사업자 모두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시는 구체적인 감정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업자 측이 기존에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복구 임종의 공장 터를 6850억 원에 사들인 사업자는 상업용지 변경에 따른 땅값을 1조 2000억 원대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땅값 상승 차익을 5000억 원대로 보고 광주시에 납부할 공공 기여 범위를 2000억 원대로 제시했다. 도시 계획 변경 운영 지침에는 공공 기여액 범위를 감정 평가액 기준 땅값 차익의 40-

60%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자가 시민 편의와 공공성 확보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공 기여액이 해당 부지의 기반 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60% 이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폭 35m의 간선 도로가 공공 기여 시설로 반영되면서 역사 문화 공원이 두 군데로 나누어지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아파트 개발과 복합 쇼핑몰 유치 등에 치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방·일신방직 부지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 유산으로 그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구도심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런 만큼 개발 과정에서 투자 수익성보다는 시민 편의와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그 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와 사업자, 시민단체들은 공공성을 살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 인재 유출 막을 연구 기반 구축해야

지난 5년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광주를 떠난 과학 기술 인재들이 1만 4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기술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은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데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광주에서 전국으로 빠져나간 과학 기술 부문 대학 졸업자는 1만 3929명인 반면 광주로 유입된 인재는 3301명으로 유출이 유입의 네 배에 달했다. 순수 유출 인력만 1만 628명으로 부산, 경북,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데 부산(331만 명), 경북(259만 명), 대구(236만 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142만 명의 광주시가 인재 유출 비율에서 가장 높다.

이번 보고서는 대학 취업자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가 연동됐다는 점에서 현실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내놓은 보고서와 연계해서 분석해 보면 광주 지역의 과학 기술 인재 유출이 위험천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연구·개발 직렬 대학 전공자의 지역 내 취업률은 41.6%에 그쳐 전국 평균 43.8%를 밑돌았다. 인재를 키워내더라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열 명중 네 명꼴로 지역을 떠난다니 유출이 얼마나 심각하지 짐작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인공 지능(AI)과 자율형 자동차 등 4차 산업 대표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애써 키운 인재를 타 지역에 뺏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재 유출을 막으려면 기업들이 연구소를 설립해 인재를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해 관련 교육을 개설하는 등 4차 산업에 맞는 인재 공급 라인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처음에 나치는 공산당원을 찾아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중략)// 어느 날 나치는 유대인을 끌고 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그리고 나치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다가왔다/ 그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으므로// 마침내 나치가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나서 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나치가 그들을 뺏겼을 때)

일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모금 관련 취재로 강제적 전 전년대 총장을 만났을 때 건네 받은 시 한편이 올랐동안 마음에 남았다. 반나치 투쟁에 앞장섰던 마르틴 니콜러의 시는 인터넷상에서 '침묵의 대가'로도 알려져 있는데, 잠으로 무겁게 다가오는 제목이다.

역사를 세우는 모금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의 모금 운동은 다수의 시민이 침묵을 깨고 역사를 바로 보기 시작한 작은 발걸음일지도 모른다.

지난 6월 29일 시작된 시민 모금액이 9일까지 4억 4138만 원을 기록했고 참여 인원은 6360명(단체)에 달했다. 이밖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한 서울 시민부터 5000원, 1만 원 썬웃돈을 보낸 사람 등의 정성이 더해 금액이다. 언론 보도를 받고 부끄러움에 뒤늦게나마 작은 정성을 보냈다는 이를 만났다. 계 모임, 공부 모임 등 다양한 그룹에서도 뜻을 모아 '함께' 기부하고, 마치 '점조직'처럼 SNS를 통해 동참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총 목표액은 10억 원. 우선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8·15 범국민대회에서 네 명의 피해자에게 1억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취재에서 만난 김선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상임 고문은 "이번 모금 운동이 시민들이 국가에, 역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인권과 국가의 존엄을 세우는 일"이 제 침묵을 깬 때다. 농협 301-0331-2604-51. /김미은 여론매체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程厚植</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곡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예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